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논 술 시 험 문제지

<인문계 / 영미문화계 / EU문화계 / 동아시아문화계>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40%, 800~1,000자>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참조하여 [마]와 [바]의 시에 드러난 삶의 방식을 해석하라.

[가] 자율은 본능이나 욕망에 구속되지 않고 이성의 명령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다. 자율은 이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지배할 때 가능하며 이성적 존재의 자기 지배라고 할 수 있다. 자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자율적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우리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욕망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 든다면 다른 사람의 욕망과 충돌하여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는 이성적 존재로서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줄에 묶여 자란 코끼리는 자율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져도 자신을 구속하는 줄을 끊지 못한다. 자율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때 완성된다. 책임의 한계를 나와 이웃, 사회, 국가, 인류에까지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나] 장(場)은 사회 공간이라는 대우주 속의 소우주를 의미하는데 소우주로서의 장이 위계적으로 조직되면서 사회 공간은 구조화된다. 이 과정에서 장은 고유한 내적 논리와 규범을 갖고 다른 장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는데 이를 통해 위치공간이 설정된다. […] 투쟁공간으로서의 장을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는 투쟁의 방식이다. 투쟁은 자율성과 타율성의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저널리즘의 경우 자율성은 사회 통합과 같은 뉴스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타율성은 판매부수와 같은 상업적 성공을 중요시한다. 생산자 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생산의 장은 자율성이 높은 반면, 일반 공중을 시장으로 삼는 대량생산의 장은 타율적 원리로 작용한다. 또한 자율성은 보존 전략을, 타율성은 전복 전략을 택한다. 현상 유지의 자율성은 방어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장의 폐쇄성을 강조하고, 현상 타파의 타율성은 공격 전략을 기반으로 장의 개방성을 추구한다. 그런데 자율성과 타율성은 상대적 개념이다. 하위 장은 독자적 규범을 통해 스스로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의 영향에서 비롯되는 타율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한다. 나의 자율성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타율성이기도 한 것이다.

-김사승, 「프로-암 온라인 시티즌 저널리즘의 저널리즘적 의미에 관한 분석」

[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삶의 본질과 자기 자신, 자신의 가능성과 목적을 그때마다 새롭게 인식한다. 그런 인식 과정에서 인간은 기존에 축적된 지식을 총체적으로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도덕적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매번 새롭게 겪어야만 하는 그때그때의 경험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이 세계를 획득하려는 고통스런 요구에 내몰린 채, 자신이 직관적으로 감지한 이상과 이 세계를 조화시키고자 애쓴다. 이 채워질 수 없는 요구야말로 인간적 불만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라는 고통의 영원한 원천이다.

–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봉인된 시간: 영화 예술의 미학과 시학』

[라] 오로지 나 혼자만이 모든 행동에 책임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표식이다. 우리는 스스로 입법하는 자이며 우리 자신이 세운 법률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자율적' 주체이다. 신 및 기타의 힘, 충동, 권위 있는 문헌, 부모의 요구, 사회 관습, 국가의 법률 등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행위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모든 외적 힘들은 '의지의 타율적 규정들'에 불과하며 타자가 부여한 우리 행동의 원인들이다. 이런 외적 힘들이 우리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자족적인 존재로서 살지 못할 것이다.

– 휴버트 드레이퍼스 · 숀 켈리, 『모든 것은 빛난다』

[마]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바] 잡풀은 잡풀끼리 어울려 산다
갖가지 모양새, 수수한 차림새
오가는 길손이야 보든 말든
바람 부는 대로 하느작이는 몸짓

가느다란 잎들이 어깨를 비빈다
이름 없는 꽃들이 미소를 짓는다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는
잡풀 이야기 하냥 즐겁다

거목은 아니어도 거목의 꿈
생명의 빛을 세상에 펼친다
푸르게 그러나 조용히 설레면서
잡풀은 잡풀끼리 어울려 산다.

- 리상각, 「잡풀」

<문제 2: 60%, 1,300~1,500자>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요약하고, 이들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 [라], [마]의 사례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라.

[가] 그러므로 무릇 최상의 실천 원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관련한 정언 명령이 있어야 한다면, […] 보편적 실천법칙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만 한다. […] 그 실천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우리는 이제 과연 이 명령이 실행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자기 자신에 대한 필연적인 의무의 개념에 따라, 자살하려는 사람은, 과연 자신의 행위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성의 이념과 양립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을 것이다. 만약 그가, 힘겨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인격을, 생이 끝날 때까지 견딜 만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물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낱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모든 행위에 있어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나]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두 결과 중에서 오직 하나만이 행위자가 의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도덕적 행위가 어떤 성격을 갖는가는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에 달려있지 의도하지 않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후자는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의 행위 하나로부터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행위자의 직접적인 의도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자기의 생명을 가능한 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좋은 의도로부터 비롯된 행위라

하더라도 의도한 목적에 적절하게 비례하지 않는다면 불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즉 만일 누군가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큰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의 행위는 불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기를 위협하는 폭력을 적절한 정도의 폭력으로 물리친다면 그의 방어 행위는 적법하다. […]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다] 테렌스는 폭격기 조종사로서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인정한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군인이다. 테렌스는 적군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적국의 시민들이 전쟁에 필요한 희생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그는 희생을 하려는 적국 시민들의 자발성이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일 적당한 수의 시민들이 죽게 된다면 그 자발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테렌스는 무기를 생산하는 적군의 군수공장을 파괴하라는 폭격명령을 받았을 때 군수공장을 폭격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도 함께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적은 희생으로 전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테렌스의 믿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P. A. 우드워드 엮음, 『이중효과 이론』

[라] 사무엘도 역시 테렌스가 참전한 전쟁과 동일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폭격기 조종사로서 군수공장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무엘도 또한 테렌스와 마찬가지로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이 적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시민들을 죽여야겠다는 의도를 갖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군수공장만을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사무엘은 만일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군수공장 주변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도 함께 죽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 사무엘의 경우에도 우리는 테렌스의 경우와 비슷하게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비록 시민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희생된 생명보다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P. A. 우드워드 엮음, 『이중효과 이론』

[마] 긴 안목에서 보면, 낙태의 허용은 여성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체 모두가 의존하는 좀 더 큰 사회적, 생물학적 체계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 될 것이다. […] 급격한 인구 증가를 피하기 위해서 대체로 어떤 식으로든 낙태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인구 증가율이 높게 유지되는 저개발 사회에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영양 결핍과 기아는 현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질 것이다. 식량이 좀 더 공평하게 배분되기만 한다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식량이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다. 숲의 파괴와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토양 침식과 기후 변화는 어쩌면 철저하게 다음 세대에 지구의 식량 생산 능력을 감소시킬 만큼 위협적일 수 있다.

- 메리 앤 워렌, 「낙태」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예시답안

<인문계/영미문화계/EU문화계/동아시아문화계>

[문제 1]

가. 출제기준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주요 주제인 자율성과 타율성의 관계성을 시의 해석에 연계하는 능력을 보고자 했으며, 이 자율성과 타율성이 사회적 공간인 하위 장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는가를 물음 더불어 개념 이해력과 분석력, 시의 해석능력과 창의성을 보고자 했음.

나. 채점기준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이용해 [마]와 [바]의 시에 담긴 의미를 비교 대조해 해석하는 능력을 보며 해석의 폭과 창의적 관점을 중시함. 핵심 개념은 '자율성'과 '타율성', '투쟁적 삶', '조화의 삶', '하위 장으로서 사회 공간'이며, 나무와 잡풀을 자연물이 아닌 인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함. 답안의 상, 중, 하 기준임.

<u>[상] 아래 8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창의적 관점이 돋보일 경우</u>

1. 서론에서 두 시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2. [가], [나], [다], [라] 4개 제시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파악해 두 시의 해석에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언급함.
3. [마]의 시에서 '나무'는 냉혹한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고독한 인간이며 [바] 시에서 '잡풀'은 서로 의지하는 소박한 보통 사람들로 파악함.
4. '자율성'과 '타율성'의 구체적 의미를 시에서 파악함. ([마]에서 '꽃을 피우는 나무'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자율적 주체를, '추위와 벌'은 억압과 통제라는 타율적 개입을 의미함. [바]에서 '잡풀은 잡풀끼리'는 스스로 선택한 자율성을, '오가는 길손이야 보든 말든'는 외부의 개입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뜻함.)
5. 두 시에서 나무와 잡풀이 '하위 장인 사회 공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함.
6. [마]의 시를 타율적 개입에 맞선 자율적 의지와 투쟁적 노력으로 해석함.
7. [바]의 시를 '오가는 길손이야 보든 말든'처럼 외부의 타율적 영향을 의식하지 않고 독자적인 규범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키며 외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함.
8. 답안의 결론 부분에 [마]의 시와 [바]의 시의 의미를 대조해 제시함.

<u>[중] 위의 8개 내용 중 5~6개 정도만 담고 있으며 창의적 관점이 부족할 경우</u>

- 두 시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자율성과 타율성, 투쟁적 삶과 조화의 삶, 하위 장인 사회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 [마]에서 ‘나무’를 냉혹한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고독한 인간으로, [바]에서 ‘잡풀’을 의지하며 사는 소박한 보통 사람들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답안의 결론 부분에 두 시의 차이점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

<u>[하] 위의 8개 내용 중 일부만 담고 있으며 창의적 관점이 없을 경우</u>

- 제시문과 시 해석에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함.
- 서론에 두 시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언급하지 못함.
- 자율성과 타율성, 투쟁적 삶과 조화의 삶, 사회 공간을 지적하지 못함.
- [마]에서 ‘나무’를 고통을 받는 고독한 인간으로, [바]에서 ‘잡풀’을 서로 의지하는 소박한 보통 사람들로 파악하지 못함.
- 답안의 결론 부분에 [마]의 시와 [바]의 시의 의미를 대조해 제시하지 못함

다. 예시답안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자율적 존재”([가])로 논의되지만, 실제 삶이 처한 사회적 장(場)에서는 자율성과 타율성이 공존하는 가운데([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는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윤리적 자율성을 추구하는가 하면([다]), 다른 어떤 이는 타율적 규정들보다는 자신의 입법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율적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라]). 제시문 [마]는 [라]에 가깝고, [바]는 [다]와 비슷하다.

[마]에서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비록 “무방비의 나목”으로 벌 받고 있는 처지이지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며 냉혹한 현실을 부정하고,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의지의 타율적 규정들”([라])을 “온몸으로” 초극하려는 주체적 의지와 행동을 강조한다. 나무의 장은 [나]가 환기하는 투쟁 공간이다. 억압과 통제를 상징하는 추위와 벌이라는 타율성의 개입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맞서 ‘꽃 피는 나무’에의 의지를 견지하는 자율적 주체이고자 한다. 반면 [바]에서는 어울려 조화롭게 사는 잡풀들의 생태가 강조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거나 어깨를 비비고, 소박하지만 즐겁게 살고자 한다. 이런 소박한 삶은 잡풀들의 사회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회 공간은 [나]에 나온 하위 장으로 외부의 타율적 통제에 맞서 “오가는 길손이야 보든 말든” 독자적 규범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는 자율성을 담고 있다. 구체적 대응방식 측면에서 [마]와 달리 투쟁적이지 않으며 [다]의 논지처럼 외부세계와 조화를 이룬다. 이때 삶은 “바람 부는 대로 하느작이는 몸짓”이 환기하는 바와 같이 허심탄회한 자율성 위에서 이루어진다. 별 욕심 없이 상부상조하며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한다.

요컨대 [마]는 사회 공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율성에 맞서 투쟁하는 의지적인 개인의 삶을, [바]는 독자적 공간에서 자율성을 지키며 외부와 조화를 이루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담고 있다. (990자)

[문제 2]

가. 출제기준

고등학교 ‘도덕’, ‘윤리와 사상’ 등의 교과과정에서 다뤄지는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이론적 이해 및 해결능력을 측정함. 이를 위해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 일반화(추상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하는지를 물어보고자 함.

나. 채점기준

이 문제는 A. [가]와 [나]의 관점을 요약, B. 요약된 관점을 가지고 제시문 [다], [라], [마]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두 단계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두 관점의 요약 및 두 관점을 바탕으로 세 가지 사례의 정당성을 평가한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부족한 요소만큼의 감점.

내용적으로 A.와 관련하여:

[가]의 관점에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실천법칙이 보편성, 절대성, 예외를 허용하지 않음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살인’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출하였는지 주목.

[나]의 관점은 원칙적으로는 [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살인이 용납되지 않지만 예외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보여주고 있음. [나]의 관점을 설명하면서 (1) 하나의 행위(예-자기방어)는 이중의 결과(효과)를 가지며, 이 중에서 <u>의도된 것(예-자기생명의 보존)만이 행위의 특징(도덕성/적법성)을 결정</u>하며, (2) 의도되지 않은 결과(예-공격자의 죽음)는 우연적인 것으로서 (3) 그것을 낳은 행위가 애초에 의도된 목적에 비례해서 행해졌다면 공격자의 죽음을 낳은 자기방어는 적법, 그러나 (4) 공격자의 죽음이 우연적인 결과가 아니고, <u>그것을 통해서 자기생명의 보존이 이루어졌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u>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점, 특히 밑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주목.

B.와 관련하여:

[가]의 관점에서는 모두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임. 그러나 [마]의 경우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른 의견이 가능할 수도 있음.

[나]의 관점에서는 [라]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임. 이를 위해서 특히 [다]와 [라]의 사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민간인의 죽음이 의도된 것인가, 우연적 결과인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이 차이에 주목해서 [나]의 관점을 적용하였는지가 관건(이중의 결과 중에서 직접적으로 의도된 결과인가?)
[다]와 [라]의 상황을 전쟁의 정당성과 연관 짓거나 [나]의 사례를 직접 적용하여 정당방위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출제의도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논리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마]는 낙태를 통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와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음.

다. 예시답안

제시문 [가]는 인간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서도 목적으로 존중받아야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최상 층위의, '보편적 실천법칙'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만약 어떤 목적을 위해 인명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반면 [나]는 정당방위의 조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나]에 따르면 특정 행위의 도덕적 특성은 어떤 의도에서 행해졌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부합되는 적절한 폭력을 사용하여 공격자를 막다가 그를 죽이게 된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았기에 살인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격자의 죽음을 애초에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 [라], [마]는 모두 인명의 손실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다]와 [라]는 모두, 특정 임무 수행이 시민들의 죽음을 초래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 전쟁 기간이 단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다]의 테렌스는 시민들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희생을 막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라]의 사무엘은 자신의 임무가 시민들의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제시문 [마]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인구증가와 그로부터 야기되는 식량난 및 영양결핍, 그리고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위 세 가지 사례들이 [가]와 [나]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가]의 관점은 보편적 실천법칙으로서 인간을 수단화하는 그 어떠한 경우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의 관점에서 [다], [라], [마]는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에 [나]의 관점에 따르면 [다]와 [마]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라]는 정당화될 수 있다. [다]의 경우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킴으로써 더 큰 희생을 막겠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시민들의 희생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낙태를 수단으로 삼아서 다른 목적을 성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라]의 경우, 행위의 도덕적 특성은 행위자의 의도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사무엘의 임무 수행이 합법적으로 수행된 것인 한, 비록 그것이 시민의 죽음을 가져오더라도 의도되지 않은 우연적 결과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1,387자)